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

-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백종구

서울기독교대학교 조교수, 역사신학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기독교신학논총 / 83집 2012년 10월 15일 / 123 ~ 147 페이지

저자명 : 백종구 (Chong Ku Paek)

I. 서론

역사가에 주어진 사명의 하나는 과거에 숨겨진 고귀한 인물이나 의미있는 사건을 발견하고 그 실상을 재구성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있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은 동아시아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한국인 선교에 주목할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커닝햄이 속한 그리스도의교회는 19세기 초 바톤 스톤(Barton Stone, 1772-1844)과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1763-1854)이 교파적 교회분열에 반대하고, “성서(초대교회)로 돌아가 하나가 되자”는 이상을 추구하며 시작한 교회이다.¹⁾ 동 교회는 이후 미국 서부 개척지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19세기 중반부터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847년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를 시작으로, 1874년 그리스도의교회 여성해외선교회(Foreign Christian Women Missionary Society), 1875년 그리스도의교회 해외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FCMS, 1875)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들 해외선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자마이카, 리베리아에, 1880년대부터는 인도(1882), 일본(1883), 중국(1886)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윌리엄 D. 커닝햄은 미국 그리스도의교회가 선교사역을 아시아로 확대해나가던 시기 1901년 10월 1일 독립선교사의 자격으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동료 선교사로부터 요시야선교회(Yotsuya Mission, 四谷宣教會)를 인수하고, 이를 거점으로 이후 35년 동안 일본인과 한국인 선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였다. 그가 사망한 1936년 요시야선교회는 교회 24개(동경 일본인 교회 9개, 동경 한국인 교회 3개, 한국 내 교회 12개)를 개척하고, 성경학교 82개를 운영하며, 본토인 사역자 22명과 \$235,000 상당의 자산

* 이 논문은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아시아기독교사학회 제2회 학술대회(2012년 4월 28일)에서 발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Winthrop S. Hudson and John Corrigan/배덕만 역, 『미국의 종교』 (서울: 성광문화사, 2008), 213-14; Henry E. Webb,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Restoration Movement* (Abilene Texas: ACU Press, 2003).

을 가진 일본 최대의 독립선교회로 발전했다.

커닝햄의 일본인과 한국인 선교에 대한 연구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방향은 1901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커닝햄과 부인 에밀리 B. 보이드(Emily Blackstone Boyd)의 일본인 선교사역이며, 다른 방향은 1923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전개된 한국인 선교사역이다. 본 연구는 자료와 시간, 그리고 지면의 제한으로 일본과 한국에 거주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개한 선교사역에 주목하려고 한다. 특히 커닝햄의 요시아선교회가 한국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동 선교회의 특징적인 선교전략, 선교사역의 과정을 기술하려고 한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에밀리 B. 보이드와 오웬 스틸(Owen Still)이 공동으로 저술한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1939)과 김찬영의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초기 역사』(논산: 한성신학교, 1991)가 유일한 것이다. *The Flaming Torch*는 커닝햄의 삶과 일본의 선교사역에 대해 기술한 책으로 한국선교에 대한 내용을 약간 포함하고 있다. 김찬영의 책(9-113쪽)은 커닝햄의 선교사역을 최초로 한국에 소개한 책으로 많은 부분을 *The Flaming Torch*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서도 커닝햄의 선교사역에 대한 일차자료인 *Tokyo Christian*을 사용할 것이다. *Tokyo Christian*은 커닝햄이 운영한 요시아선교회에서 1901년부터 1961년까지 발행된 월간 신문이다. 동 신문은 1920년대 초반부터 1941년까지 한국인 선교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그리스도의교회가 성장하는 1934년 3월부터 1941년 2월까지에는 'Japan and Korea for Christ and His Church'라는 부제를 사용하고 있다.²⁾

II. 윌리엄 D. 커닝햄과 요시아선교회

윌리엄 D. 커닝햄은 1864년 7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트론 타운십(Lower Tyrone Township)에서 농사짓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다.³⁾ 그는 어린 시절을 농사일을 하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분위기의 가정에서 보냈다. 어린 커닝햄의 장래 희망은 대학을 졸업하여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1887년 여러 해 동안 일하며 저축한 돈으로 캘리포니아 주립사범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4년 후 그의 나이 27세 돌연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의교회의 정신으로 세워진 베다니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커닝햄은 이곳 베다니대학에서 그의 미래 복음사역에 유익한 많은 경험-여름방학기간 학생전도사 견습, 시카고 세계박람회에 참석 등-을 쌓았다.

베다니대학 졸업 후 1894년 7월 29일 커닝햄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성 도마교회(St. Thomas Church)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목회는 성공적으로 첫째 103명에게 침례를 주고, 이어 타교단 부흥회도 인도했다. 온타리오 목회사역의 시기 그의 설교주제는 선교였다. 이곳 목회 3년째 되는 1897년 한동안 끊겼던 여자 친구 에밀리 B. 보이드(Emily Blackstone Boyd)와의 서신 연락이 재개되었다. 이때 보이드는 인도에 선교사로 갈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고, 커닝햄 또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결심

2) 이 글에 나오는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라는 이름은 1940년대 초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영문 Church of Christ를 번역하여 정한 명칭으로, 그전에는 '기독교 교회' 혹은 '기독교회'라고 불렀다. 이 글에서는 그리스도의교회를 사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기독교 교회' 혹은 '기독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3) W.D. Cunningham and Owen Still,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Tokyo: Yotsuya Mission, 1939), 1-30.

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공통분모 때문에 가까워졌고 이것은 1897년 10월 20일 약혼으로 이어졌다.

1898년 6월 갓 결혼한 신혼부부 커닝햄과 보이드는 신혼여행 기간 동안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교회 해외선교회(FCMS)의 문을 두드렸다. 신체검사와 다른 검사에 합격한 두 사람은 선교회로부터 일본선교를 제안 받았다. 그들은 이 제안을 주님의 인도로 믿고, 이때부터 일본을 선교지로 품었다. 그런데 이들이 일본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커닝햄의 몸에 이상이 생겼고 결국 해외선교회로부터 건강 상 해외선교 불가 판정을 받았다. 선교회의 불가 판정 통보는 커닝햄을 실망하게 했다. 그러나 커닝햄은 하나님과 영혼이 여전히 그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의 소명을 따르고 결심하였다. 즉 선교회가 보내주지 않는다면 독립선교사로 일본에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1901년 10월 1일 커닝햄 부부는 어린 딸 에로이즈(Eloise)를 데리고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커닝햄이 입국한 1900년대, 일본에는 회중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등 여러 교파교회에 속한 850여명의 선교사들이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다.⁴⁾ 또 그리스도의교회 해외선교회 소속 선교사 29명(선교사 부인 포함)과 커닝햄처럼 선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교회 출신 독립선교사도 5명이 있었다.⁵⁾ 요코하마 도착 직후 커닝햄부부는 그리스도의교회 해외선교회 선교사의 환영을 받았다. 첫 밤을 요코하마 동료 선교사의 집에서 보내고, 다음 날 동경으로 이동하여 다른 동료의 집에서 2주 머물면서 임시 거처할 집을 찾았다. 임시처소에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그가 미국에서 가져온 인쇄기로 *Tokyo Christian*을 발간하는 것이었다. 이 잡지는 1901년 11월 첫 호가 발간된 이후 40년 동안 매월 커닝햄의 선교사역의 진행을 알리고 선교비를 모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에서 다음으로 한 일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해외선교회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당시 일본은 서구 문명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시기로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커닝햄은 어렵지 않게 영어를 가르치는 파트타임 일을 구할 수 있었고, 2년 후에 일본 귀족대학(College for Japanese Nobles)이 제안한 영어교사직을 받아들여 가정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였다.

1902년 커닝햄은 동료 독립선교사 앨리스 밀러(Alice Miller)와 다른 선교사들이 동경에서 시작한 요시야선교회를 인수 받았다. 이후 35년 동안 커닝햄은 선교회의 회장으로 동료선교사 2-5명과 함께 선교기금을 모으고, 본토인 사역자를 훈련하고, 건물을 세우며, 선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동 선교회는 1903년 동경에 첫 교회를 설립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1908년 교회 3개 성경학교 5개에서, 1922년 교회 6개, 선교기지 8개를 갖게 되었다. 동 선교회의 선교대상은 일본인이었으나 1923년부터 그 대상을 한국인으로 확대하였다. 커닝햄의 사망 이후 선교회는 그의 부인 에미리 B. 보이드에 의해 계속 운영되고, 성장세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40년 가을 요시야선교회는 일본 내 교회와 국가에 일어난 변화로 고통을

4) *A Concise History of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Cincinnati: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910), 38.

5) 앞의 책, 37-52. 그리스도의교회 해외선교회 선교사들은 1884년부터 입국하기 시작하여 아키타(7명), 동경(14명), 센다이(5명), 오오사카(3명)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하였다. 독립선교사로는 그리스도의교회(무악기)의 캔드릭 애즈빌(Kendrick Azbill, 1848-1929), 존 무디 맥칼랩(John Moody McCaleb, 1871-1953) 부부가 1892년부터 일본에 있었다. 그리고 1895년 앨리스 밀러(Alice Miller, ?-1928)가 와서 이들 사역에 합류했다.

겪기 시작했다.⁶⁾ 일본이 미국과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공공모임에 황제의 칙령을 낭독하게 하고, 동방요배를 의무화했다. 종교단체법으로 교회의 재산(건물과 토지)이 정부의 규제를 받게 했다. 또 교파교회들을 하나의 교회(일본기독교단)로 통합하게 하고, 통합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의 사역을 중지시키고, 일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외국으로부터 오는 재정 지원을 끊게 했다.⁷⁾ 미국정부는 1941년 2월 24일 자국민의 철수 명령을 고시했다. 타 교단교회의 선교사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철수 명령 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철수 명령 후에 선교현장을 떠났다.⁸⁾ 철수 명령 이후 요시야선교회의 선교사 6명 중 4명이 떠났다. 1941년 1월 21일 동경 교회 지도자들(일본인 사역자 4명, 한국인 교회 사역자 2명)은 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⁹⁾

III. 요시야선교회의 선교전략

선교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략적 장소를 선교센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지의 피선교지의 경우 선교사들은 선교사역 첫 몇 년을 언와와 풍습을 배우는 것 외에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략적 선교기지를 찾는 것이 보통이다. 커닝햄은 선교사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의 중심 도시인 동경을 선택했다. 그리고 동경에서는 일본 천황이 사는 곳에서 멀지않은 시내 중심지에서 첫 성경 공부반을 시작하고, 첫 그리스도의교회 교회(제1교회)를 설립하고, 요시야선교회를 운영하고, 선교사 사택을 지어 선교사들이 머무르게 했다.

요시야선교회의 선교사역은 복음전도, 교육, 출판, 나병/보육 (나중에 음악사역이 추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었다. 그러나 동 선교회의 주력사업은 나병/보육 같은 사회사업보다는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전도와 교인의 양육이었다.¹⁰⁾ 요시야선교회의 교회개척 방법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이 원칙은 토착교회 개척의 선교방법으로 알려진 삼자원칙-자전(自傳), 자치(自治), 자급(自立)-이다.¹¹⁾ 자전은 본토인을 전도인으로 훈련시켜 전도하게 하고, 자치는 현지인들 스스로 사역자를 세워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고, 자급은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개교회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선교회는 삼자 가운데 자전에 우선권을 두었다.¹²⁾ 커닝햄은 “일본인은 일본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다”고 생각하고,¹³⁾ 선교 사업에 있어 선교사의 주요 역할은 직접적인 복음사역(설교나 전도)보

6) "Yotsuya Mission," *TC*, May 1941, 40 no.7, 1.

7) "Japan and Korea for Christ and His Church," *TC*, November 1940, 39 no.12, p.1.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ume 11: *Advance through Storm*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5), 394; 서정민, 『한일 기독교 관계사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2), 121-145. 종교단체법은 1939년 4월에 공포하여 1940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종교단체들은 1941년 3월 31일 까지 등록을 마쳐야 했다.

8)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1945), 385-86. "A Statement of Facts," *TC*, January 1941, 40 no.4, 3; "The Work Goes On," *TC*, 1.

9) "A Statement of Facts," *TC*, April 1941, 40 no.6, 3.

10) "Thirty-Third Annual Report," *TC*, February 1934, XXXIII no.4, 1.

11) Wilbert R. Shenk, "Henry Venn 1796-1873, Champion of Indigenous Church Principles," Gerald H. Anderson, et al., eds. *Mission Legacies: Biographical Studies of Leaders of the Modern Missionary Movement* (New York: Maryknoll, 1995), 541-542. "Different," *TC*, November 1933, XXXIII no.1, 1. 요시야선교회의 선교 특징 8개 항목 중 6,7,8항이 삼자에 대한 원칙이다.

12) "Thirty Six Unbroken Years' Work for the Lord," *TC*, November 1937, XXXII no.1, 4.

13) Cunningham,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1939), 38.

다는 방향을 주고, 지도하고, 본토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요시야선교회는 교회의 조직에서 성경의 전례를 중요시하여 훈련받은 평신도에게 설교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 및 성찬을 거행할 권한을 주었다.¹⁴⁾ 그리고 복음사역의 진행은 선교회에서 훈련받은 본토인 사역자를 새로운 지역에 보내, 주 1회 성경학교나 복음전도집회를 가질 방을 임대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종자를 만들어 사역을 시키고, 사역이 번성하면, 집을 임대하여 전임사역자를 고용했다. 또 여건이 허락하면 땅을 구입하여 교회건물을 세웠다.¹⁵⁾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지역에 성경공부나 복음집회가 시작되어, 선교기지가 되고, 선교기지가 성장하여 교회로 발전하였다.

요시야선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두 가지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나는 초신자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매주 설교와 성찬 중심의 예배, 성경공부 및 주일학교 등 젊은 남녀와 어린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¹⁶⁾ 주중에는 오후에 자선학교와 여성모임을, 저녁 시간에 기도모임, 야간학교, 전도모임을 운영하였다. 다른 하나는 복음전도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본토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¹⁷⁾ 커닝햄은 복음사역을 위해 젊은 본토인 사역자를 직접 교육하는 일을 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다. 요시야선교회의 설립 초기에는 일본에 젊은 그리스도의교회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었다. 또 이후에도 목회자 양성학교(Seminar)가 많지 않았고 또 있다해도 대부분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⁸⁾ 요시야선교회는 1905년 일본인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학교를, 1931년 9월 한국인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학교를 개설했다.¹⁹⁾

요시야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교육이었다. 성경교육은 “성서(초대교회)로 돌아가 하나가 되자”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교회의 핵심사역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는 교회 내부에는 물론 선교기지에 광범위하게 개설되었다.

IV. 윌리엄 D. 커닝햄과 재일 한국인 선교(1924-1941)

일본에 상주하는 해외선교회의 선교사역 대상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다. 요시야선교회가 다른 해외선교회와 구별된 사역 중 하나는 선교사역의 대상을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요시야선교회가 한국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복음전파와 관련하여 커닝햄이 한국인에 대해 가진 개인적인 확신에 있었다.

1. 윌리엄 D. 커닝햄의 재일 한국인 선교

커닝햄이 한국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07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 100주년기념 국제선교사대회에 참석 차 상해로 가던 중

14) 앞의 책, 144.

15) "Outstations," *TC*, February 1926, XXVI no.4, 2.

16) Cunningham,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1939), 40-42.

17) *Ibid.*, 43.

18) *A Concise History of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Cincinnati: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910), 48-49. 그리스도의교회 해외선교회는 1903년 동경의 한 교회에서 사역자 양성을 위해 드레이크 성경대학(Drake Bible College)을 설립했다. 이 대학은 1904년 동경의 교외 타키노가와(Takinogawa)로 옮겨 1923년까지 교육을 실시했다.

19) "Miscellaneous," *TC*, October 1931, XXX no.12, 2.

한국에 들렀을 때였다. 그는 잠시 서울과 평양에 머물렀는데 이때 1,200명의 교인들이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²⁰⁾ 또 호기심에서 한국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고 풍물을 많이 사서 일본으로 돌아가 자기 가족과 일본 교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에 그리스도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1911년 후반 커닝햄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소식을 전해 듣고, 요시야선교회 소속 일본인 교인들로 하여금 한국선교를 위해 헌금 15.70¥(당시 환율은 10¥=\$5)을 모았다. 또 일본인 교회의 교인으로 요시야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익명의 한국인이 한국 YMCA 총무로 임명되어 한국에 들어가게 되자, 그를 통해 한국인을 전도하고 침례를 베풀게 하였다. 그러나 선교회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 복음전도사역을 지속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16년 1차 세계대전으로 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기금이 풍부해지자, 한국에 외각 선교기지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²¹⁾ 1920년대 초 커닝햄은 동경 일본인 교회에 한국인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선교회에서 훈련하여 전도인으로 파견하면, 이들이 동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²²⁾ 커닝햄의 이런 생각은 3년 후 실천으로 옮겨졌다.

2. 한국인 그리스도의교회 설립

요시야선교회의 한국인 선교는 1923년 동경에서 시작되었다.²³⁾ 동 선교회가 선교대상을 한국인으로 확대한 시기 일본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선교사역에 유리한 시기는 아니었다. 일본은 192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 공황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했고, 1930년대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1941년 12월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는 한국인 40만이 거주하였는데, 그 중 오오사카에 22만, 동경에 7만, 요코하마에 3,000명이 있었다.

요시야선교회는 1924년 동경 제5교회에 참석하는 한국인 교인 박경순을 권면하여 동경 시의 외각지대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에 주일학교를 열게 했다.²⁴⁾ 전도열이 강한 청년 박경순은 외각지대 흩어져 있는 판자촌 한국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어린이들을 주일학교로 불러 모았다. 또 8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국인 성경학교 2개를 열었다. 요시야선교회가 방을 임대하고 설교처를 마련해주었다. 이 성경학교가 성장하여 몇 개월 후 미즈구보(Mitsukubo)와 미가와지마(Mikawajima) 선교기지가 되었다. 1926년 8월 박경순은 미가와지마 선교기지에서 40명을 개종시켜 선교회의 첫 한국인 교회, 제7교회(三河島 조선기독교회)를 세웠다. 그러던 중 박경순이 미국 유학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 교회를 그의 형 박홍순이 임시 사역하게 주선했다.²⁵⁾ 박홍순이 사역하는 동안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예배당 건물, 목사관, 보육원을 갖추었다. 1930년 현재 150여명이 등록하고 매주 100명 이상이 출석하고, 선교기지 7개 보조사역자 10명을 가졌다.²⁶⁾

20) "Interested in Korea," *TC*, November 1933, XXXIII no.1, 1.

21) Cunningham,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1939), p.57.

22) "About People," *TC*, November 1921, XXI no.1, 1.

23) Cunningham,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1939), 87.

24) "The Pak Brothers," *TC*, January 1927, XXVI no.3, 1; "Miscellaneous," *TC*, November 1935, XXXV no.1, 4.

25) "About People," *TC*, November 1926, XXVI no.3, 1. 박홍순은 10여년 동안 한국 장로교 목사였다가 얼마 전 침례를 받고 이명한 설교자였다.

26) "Yotsuya Mission Workers," May 1930, XXII no.7, 2.

제7교회는 1929년 4월 박흥순이 한국으로 떠난 이후 사역자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1931년 7월 한국에서 부흥사로 활동하던 김상준 목사가 제7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²⁷⁾ 김상준은 원래 한국 성결교 출신 목회자로 요시야선교회의 초대로 동경에 왔었다. 그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동경과 요코하마 지역 한국인 교단교회들과 연합하여 2주간 부흥집회를 열고, 부흥회 기간 중 사경회를 인도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김상준이 시무하는 동안 교인의 출석률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그는 한국인 사역자훈련학교의 운영도 맡게 되었다.

1926년 요시야선교회는 요코하마에 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사역을 시작하였다.²⁸⁾ 당시 요코하마에는 한국인 3,000명이 살고 있었다. 선교회는 1926년 6월 한국인 유학생 이주익으로 한국인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주일성경학교를 열게 했다. 이후 복음사역이 확장되고 부흥하여 1927년 7월 선교기지 9개가 열렸다. 이들 선교기지가 성장하여 1929년 6월 미야다초(Miyadacho)에 한국인 첫 교회 제9교회가 개척되었다. 이주익에 이어 탁영록이 사역을 이어 받았으나 그가 병으로 귀국하자 한국인 성낙소가 맡았다.²⁹⁾ 성낙소는 1930년 5월 커닝햄의 초대로 동경에 왔다가 그의 권유로 임시로 동 교회의 사역을 맡게 된 것이다.³⁰⁾ 성낙소는 요코하마 제9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전도, 빈민굴, 병원 환자 심방 등의 사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1931년 9월 하순 서울의 교회 사역자로 임명되어 귀국하였다.

1929년 동경 사루에(Sarue, 深川)에 두 번째 한국인 제10교회가 개척되었다.³¹⁾ 동 교회의 사역자 이인범은 1927년부터 제7교회의 한 선교기지를 성장시켜 동 교회를 설립하고 야학을 시작하였다.³²⁾ 이인범이 1933년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긴 후 허제가 제10교회와 선교기지 5개를 관리하고 사역자들을 감독하였다. 허제는 이인범의 제자로 그의 사역 기간 동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여 1933년 동경의 교회들 중 제일 많은 출석자를 갖는 교회가 되었다.³³⁾ 그러나 허제는 자신만의 사역지를 갖고 싶어, 별도로 선교기지를 열고 활동하여 동경에 세 번째 한국인 교회(제25교회)를 설립하였다.

<표1> 동경과 요코하마 한국인 그리스도의교회와 선교기지의 추이

구분/시기		1925.5	1926.8	1927.7	1928.5	1929.6	1930	1933	1935.11
선교기지	동경	2		4	5	7	7	5	
	요코하마			7	3	1			
교회	동경		1	1	1	1	2	2	3
	요코하마					1	1	1	

27) "Mr. San Chung Kim," *TC*, September 1931, XXX no.11, 4.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2007), 122, 129.

28) "Korean Church in Yokohama," *TC*, January 1930, XXIX no.3, 1; "Miscellaneous," *TC*, March 1926, XXV no.5. 당시 요코하마에는 400여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가 살았다.

29) "Tokyo Notes," *TC*, April 1931, XXX no.6, 1.

30) 커닝햄은 일본에 유학 온 한국인 교인을 통해 성낙소라는 한국인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낙소를 일본 동경에 초대하였다. 성낙소는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구세군사관이었다가 외국인 선교사관의 인종차별 의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사직하였다 (1915-1927). 이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기성 교회들의 교리적 모순성을 발견하고, 1927년 충남 부여지방에서 '기독교교회'란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다.

31) "Miscellaneous," *TC*, November 1928, XXIX no.1, 2.

32) "Yotsuya Works," *TC*, July 1929, XXVIII no.9, 2; "Miscellaneous," *TC*, December 1929, XXIX no.2, 3.

33) "Another Korean Church in Tokyo," *TC*, April 1935, 34 no.6, 4; 앞의 신문, 1.

요시야선교회가 1923년부터 개척한 한국인 교회(동경 3개 요코하마 1개)는 초기에는 모두 부흥했으나 사역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끝까지 존속한 교회는 2개뿐이다. 제7교회는 김상준이 병으로 한국에 귀국한 후, 한국 호건교회의 전도인 이원균이 전임사역자로 임명되어 1937년 봄부터 사역을 맡았다. 요코하마 제9교회는 성낙소가 귀국한지 1년 후 자립교회가 되었지만 사역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³⁴⁾ 제10교회는 허제가 떠난 후 1935년 주정국이 맡았다가 얼마 후 이선영으로 바뀌었다. 허제가 동경에 개척한 제25교회는 1935년 4월 이후 보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것으로 폐쇄된 것 같다. 1940년 가을 (종교단체법의 공포와 교회합동의 문제로) 한국인 교회에 대한 선교회의 재정 지원이 어려워졌을 때, 제7교회와 제10교회는 사역자들의 급료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1940년대 초 일본 교파교회들의 통합이 진행되던 시기,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원균과 이선영)은 일본인 지도자들(4명)과 함께 모두 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³⁵⁾

V.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개척(1924-1941)

한국에 외각 선교기지를 설립하고자 하는 커닝햄의 소원은 자신의 한국 방문에서 실현되었다. 1924년 4월 커닝햄 부부는 서울을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한옥을 빌려 예배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경에 있는 제1교회의 교인으로 훈련을 받은 한국인 박제곤에게 복음사역을 맡겼다. 그러나 박제곤의 사역은 예기치 못한 가족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고, 대신 한국인 이원균이 복음사역을 수행하게 되었다.³⁶⁾ 이원균은 신학교 학생 때 성경을 공부하다 교파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 교사들과 동료학생들과 자주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러던 중 “신조 없이 그리스도만 가진 교회”에 대해 듣고 그리스도의교회로 들어왔다. 이원균은 1925년 서울에 외각 선교기지를 세우고 전도사역을 활발히 수행하였다.³⁷⁾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사역을 중단하게 되었다. 후임자를 모색하던 중 마침 동경 제7교회 사역자 박홍순이 한국에 체류하게 되자 이 사역을 맡게 하였다. 박홍순은 1929년 4월부터 서울에 체류하며 사역하여 서울의 선교기지를 4개로 성장시켰다.³⁸⁾

서울의 한 선교기지가 성장하여 1930년 4월 27일 최초의 그리스도의교회가 세워지고, 5개의 선교기지가 열렸다.³⁹⁾ 요시야선교회는 요코하마 한국인 교회에서 사역한 성낙소를 서울의 교회 전임사역자로 임명하였다.⁴⁰⁾ 성낙소는 1931년 9월 하순 귀국하고, 3개월 후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를 ‘동경요시야선교회 기독교회’(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1년 반 동안 서울의 교회와 6개의 선교기지를 관리하고, 보육원을 개설하고, 부여 지방에 설립된 기존 ‘기독교회’를 매월 순회하며 관리하였다.⁴¹⁾

34) 성낙소가 귀국한 이후 요코하마 교회는 류재훈과 박주류가 임시로 사역을 맡았다. 1934년부터 요코하마 교회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쇄된 것 같다.

35) "A Statement of Facts," *TC*, April 1941, 40 no.6, 3.

36) "Yotsuya Works," *TC*, September 1925, XXXIV no.4, 2.

37) "Evangelist W. L. Lee, Korea," June 1933, XXXII no.8, 1.

38) "Yotsuya Works," *TC*, September 1928, XXVIII no.1, 2.

39) "About People," *TC*, September 1929, XXVIII no.1, 1.

40) "Tokyo Notes," *TC*, December 1931, XXXI no.2, 2.

41) "Some Startling Statistics," *TC*, November 1932, XXXIII no.1, 2; "About People," *TC*, May 1932,

1. 한강이남 그리스도의교회 개척

한국에서 요시야선교회의 복음사역이 본격화된 것은 1932년부터 이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다양한 신학, 교리, 그리고 조직의 배경을 가진 교파형 교회가 정착되고 있었다. 비교적 빨리 한국선교에 착수한 장로교와 감리교 소속 선교회들이 피선교지에서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한 선교지역분할협정으로 선교회의 배경에 따라 교회가 지역적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낳았다.⁴²⁾ 또 선교회 별로 교파적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파교회형 목회자를 양성하였다. 다른 한편 선교사들의 지배와 교권에 저항하여 별도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전한 교파주의의 형식화와 경직성에 반대하고 ‘자유’와 ‘자치’를 주장하는 교인들이 나타났다.⁴³⁾

1932년 8월 커닝햄은 한국으로부터 긴급히 선교지원을 요청하는 전보를 받았다. 이때 일본의 요시야선교회는 본국에서 오는 선교기금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선교기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선교회는 선교기지 폐쇄, 본토 전도인 해고, 선교사의 사례비 삭감, 일본인 교회에 대한 지원 동결, 가능한 교회에 자립을 권유하였다.⁴⁴⁾ 그러나 커닝햄은 한국에 열린 복음사역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본인 교회 사역자의 동의 아래 일본인 교회를 자립시키는 대신 한국인 교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했다.⁴⁵⁾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 복음전도사역을 하고 있던 제10교회의 전임사역자 이인범을 보내서 현지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인범은 1932년 8-9월, 그리고 1933년 2-3월 두 차례 한국에 머물면서 성공적인 복음집회를 인도하고 귀국하여 고무적인 보고를 하였다.⁴⁶⁾ 커닝햄은 1932-33년 한국 현지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한국에 신약교회를 설립할 때가 왔다...한국에는 두 개의 큰 교파[장로교와 감리교]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곳에는 이 선교회[요시야선교회]가 전한 가르침을 제하면 무교단[undenominationalism]의 가르침은 전무하다. [두 교파 교회가 맺은] 선교지역분할협정이 한국에 신약교회를 설립할 기회를 빼앗아 갔다. 한국교회에는 성경공부와 기도 두 가지가 유명하다...최근 1-2년 동안 교파주의에 불만을 가진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회들은 인간적인 신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분파주의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그들의 신앙 가이드로 삼았다... 인간적인 신조가 없는 교회화에 대해 전해들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교회를 조직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편지를 사방에서 보내오고 있다.⁴⁷⁾

요시야선교회는 1933년 9월 성낙소를 해직하고 이인범을 새로운 조선포교관리자로 임명하여 한국에 파송하기로 결정했다.⁴⁸⁾ 한국에서 이인범은 이후 7-8년 동안 요시야선교

XXXI no.7.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와의 관계」(2007), 124. 성낙소가 설립한 7개 교회는 서울의 첫 교회와 6개의 선교기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4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역사I』(서울: 기독교문사, 2011), 163-173.

43) 이진구, “조선적 기독교운동,” 『한국기독교사 탐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100-101.

44) “Thirty-Second Annual Report,” *TC*, February 1933, XXXII no.4, 2.

45) 앞의 신문.

46) “Evangelism,” *TC*, February 1933, XXXII no.4, 2; “Mr. Lee's Second Survey in Korea,” *TC*, May 1933, XXXII no.7, 4. 이인범은 1932년 첫 방문 교회(출석교인 150명)에서 목사 1명, 장로 2명, 집사 12명, 평신도 56명을, 1933년 사역에서 53명을 침례 했다.

47) William D. Cunningham, “Awakening Korea,” *TC*, November 1933, XXXIII no.1, 1.

48)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124. 성낙소는 이인범이 자신의 사역활동을 커닝햄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그를 해직하게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이인범은 요시야선교회에 의해 동경에 있는 한국인 사역자 중 가장 능력 있는 복음사역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성낙소의 해직 사유를 단지 이인범의 보고에만

회를 대표하여 서울과 제물포(현 인천)를 중심으로 순회하며 전도집회를 열고, 교회를 개척하고 관리하였다. 이인범 자신은 서울의 제1교회를 담임하였다. 1935년부터 이인범은 한강 이남의 주요 도시인 마산, 대구로 전도지역을 확장하였다. 1935년 5월 대구를 방문, 집회를 인도하여 8명에게 침례를 주고, 이듬해 마산을 방문하여 70명을 침례 하였다.⁴⁹⁾ 또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조선총독부 등록 명칭을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로 개명하였다.⁵⁰⁾

그리스도의교회는 제물포에서도 개척되었다.⁵¹⁾ 제물포 제1교회(사역자 신신건)는 처음 서울의 교회 선교기지로 시작했으나 빠르게 성장하여 교회로 조직되고, 몇 년 후에는 서울 모교회보다 더 강한 교회가 되었다. 1936년 10월 제물포 제1교회에 한국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성경훈련학교가 개설되어 첫 학기에 16명이 등록하였다. 매주 4회 밤에 1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다. 1939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일반학교도 개설되었다. 신신건이 담임으로 사역하는 동안 제물포 제1교회는 매일 새벽 4시 기도회를 갖고, 주중에는 매일 오전, 오후, 밤 세 번 교회학교를 열었다.

1936년 12월 김영배가 인천 야나지쵸(Yanagicho)에 교회를 새로 개척했다. 이 교회 역시 선교기지 성경학교로 시작하여 교회가 되었다.⁵²⁾ 사역자 김영배는 동경 와세다 대학과 상해 성 존스 대학교 졸업생이며,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경에 있을 때 요시아선교회에 작은 사례비를 받고 봉사했었다. 제물포에는 이외에도 제3교회가 정삼선에 의해 개척되었다. 정삼선은 서울에 있는 교회 집사로 제물포에 내려가 전도하고, 침례를 주어, 신자 그룹이 생기자 교회를 조직하였다. 매주 평균 30명이 모였다.

1937년 이인범은 서울에 한국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성경훈련학교를 개설하였다.⁵³⁾ 처음에 이인범과 제물포 제2교회의 전임사역자 김영배가 가르쳤다. 1938년 3월부터 요시아선교회가 파견한 히치(Thomas George Hitch, 1879-?)선교사 가족이 서울에 체류하게 되면서, 처음 몇 달 동안은 히치의 집에서 모이다 아현동에 건물 2층을 임대하여 모였다. 5-7개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1938년 가을 학기에 오전반 14명 저녁반 13명 총 27명이 등록하였다. 가르치는 교수진은 히치가족과 이인범이었다. 히치가 1939년 8월 본국 호주로 떠난 후 교수진은 이인범, 남감리교 목회자였다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교회 사역자가 된 홍종수, 제물포 제1교회의 사역자 신신건이었다. 이 학교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학생 중에는 사역자와 전도부인도 있었다.

2. 한강 이북 그리스도의교회 개척

이인범에 이어 1930년대 한국의 복음사역에 크게 활약한 한국인 사역자는 이원균이다. 이원균은 6년 전 서울에 선교기지를 세운 전도인으로 그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1933년 다시 한국사역을 맡았다. 이원균은 한강 이북 특히 평북 구성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사역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About People," June 1936, XXXV no.8, 2.

49) "Miscellaneous," *TC*, February 1936, XXXV no.4, 3.

50)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와의 관계」(2007), 125.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 통계자료에는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라는 이름은 1938년부터 나온다.

51) "Miscellaneous," *TC*, February 1937, XXXVI no.4, 3; "Opportunity Book of Yotsuya Mission," *TC*, April 1939, 38 no.6, 2.

52) "Back From Korea, Facts in A Nut Shell," *TC*, December 1936, XXXV no.14, p.1; "Opportunity Book of Yotsuya Mission," *TC*, April 1939, 38 no.6, 2-3.

53) "The Thirty-Seventh Anniversary," *TC*, November 1938, 38 no.1, 1-3; "Our Korean Bible School," *TC*, November 1939, 38 no.12, 3.

을 전개하고,⁵⁴⁾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호건에 첫 그리스도의교회를 설립하였다. 호건은 3,000명이 사는 시골 읍으로 주민 8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인 친기독교지역이었다. 호건교회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여 1933년 구성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1937년 교인 173명으로 요시야선교회가 일본과 한국에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⁵⁵⁾ 이원균은 교회 내부에 1,000원을 들여 보육원을 짓고, 보육원에 50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하였다.

호건교회 설립 이후에도 이원균은 순회전도를 통해 구성지역 인근 읍과 마을에 28개 외각 선교기지를 개척하였다.⁵⁶⁾ 요시야선교회는 외각 선교기지가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선교기지에서의 사역은 한국인 사역자 자비량으로 하게 했다. 이원균은 오봉(1936), 용포동, 문임동(1939), 약수표, 그리고 신의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에 한국인 사역자를 세웠다. 이원균은 1937년 봄 일본에 있는 한국인 제7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이후 호건교회는 사역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⁵⁷⁾

3.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성장과 최후

요시야선교회의 한국선교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주한 해외선교회의 방해로 평탄하지 못했다. 한국 내 기존 교파교회들은 선교지역분할협정을 주장하고, 새로운 교파선교회가 들어와 자기들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불평하였다. 그러나 1936년 요시야선교회는 주한 해외선교회의 방해를 극복하고, 기존 교파교회에 불만을 가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교회로 인도하는데 성공했다.⁵⁸⁾ 요시야선교회에 의하면 당시 한국에는 교단주의에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수천 명의 교파 교인들이 교파 지도자들에게 저항하고 있으며,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족쇄를 부수었거나 부수고 있다. 이것[교파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지역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성공공부의 결과이다.⁵⁹⁾

한국 교인들이 기존 교파교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원인은 교파교회가 평신도의 복음사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성경보다 신조를 추종하게 한다는 것이었다.⁶⁰⁾ 요시야선교회의 이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요시야선교회는 평신도의 복음사역 권리를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 분열보다 연합을 강조하여, 당시 교파교회에 불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은 성공

54) 한국성서신학교, 「세메론」, 제7권 (1972), 14. 힐 선교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그리스도의교회의 첫 전도자는 동경에 있는 커닝햄 선교회(요시야선교회)에서 일해 왔던 한 한국인(이원균)이었다. 그는 1924년경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고 곧 7개 교회를 한국에 세웠다. 힐 선교사가 1939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교회들 가운데 3개 교회(인천에 2개, 서울에 1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 힐의 진술에 나오는 이원균이 개척한 7교회는 1933-1937년 봄 사이에 구성지역에 개척한 교회를 말할 것이다.

55) "Evangelist W. L. Lee, Korea," *TC*, June 1933, XXXII no.8, 1; "About People," *TC*, November 1933, XXXIII no.1, 2; "Some Figures for Last Years' Work," *TC*, April 1937, XXXVI no.6, 2.

56) "About People," *TC*, April 1936, XXXV no.6, 1.

57) 1937년 이후 김성산이, 그리고 1940년 이후 이용섭이 사역을 맡았다.

58) "W.K. Lee Says," *TC*, February 1936, XXXV no.4, 3; "Our Thirty-Fifth Annual Report," 앞의 신문, 2.

59) "A Great Opportunity," *TC*, April 1933, XXXII no.6, 4.

60) "Korean Notes," *TC*, September 1935, XXXIV no.11, 3.

하여 한국 내 그리스도의교회는 1930년 1개 교회가 1933년 7개로, 1935년 12개(제물포 3개, 서울 3개, 구성 5개, 마산 1개)로 계속 성장했다. (<표2>참고)

1937년부터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는 일본의 그리스도의교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 시기 한국인 사역자 수는 12명으로 일본보다 1명 더 많았지만, 한국 측 침례자 수는 일본의 침례자 수를 큰 차이로 능가하고,⁶¹⁾ 매주 참석교인의 숫자 역시 한국인 교회가 일본의 일본인 교회보다 2배 더 많았다.⁶²⁾ 또 주일학교와 성경학교의 참석자 자 수에 있어서도 일본을 능가하였다.⁶³⁾ 요시야선교회는 이 시기 한국 복음사역의 성공을 “눈 덮인 언덕을 굴러내려 가는 눈송이”로 비유할 정도였다.⁶⁴⁾

<표2>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성장 추이(1925-1940)⁶⁵⁾

시기	1925	1929.	1930.	1932.	1933.	1933.	1934.	1935.	1936.	1938.	1940
선 교 기지 교회	1	4	1	1	6	7	8	12	13	14	17
				5				18		6	30 이상

한국에 본토인 사역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사역자들을 지도할 선교사가 필요하였다.⁶⁶⁾ 요시야선교회가 한국에 파견한 최초의 선교사는 앞에 언급했던 히치(T.G. Hitch) 부부였다. 히치 부부는 1938년 3월 한국에 입국한 후 성경훈련학교운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방문, 영어성경공부반 개설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⁶⁷⁾ 그러나 히치는 한국에서 1년 반 사역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또 신경질환을 얻어 1939년 8월 하순 본국으로 돌아갔다.⁶⁸⁾ 히치가 귀국한 후 요시야선회는 6개월에 한 번씩 선교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복음사역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⁶⁹⁾

1940년 가을부터 일본 내 교회와 국가 안에 일어난 변화(종교단체법과 교회합동)는 한국 복음사역에 대한 요시야선교회의 재정지원을 불가능하게 했다. 당시 요시야선교회는 한국 복음사역의 상당 부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었다.⁷⁰⁾ 한국인 사역자들에게 매월 \$7.50-15을, 전도부인에게 \$1.15-5.75을 지불했다. 또 회중이 사용하는 장소의 임대료로 평균 \$4.50을 지원하고, 외각 선교기지 성경학교가 사용하는 방의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요시야선교회는 1940년 11월 23일 재정 지원이 끝날 경우에 대비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교사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28일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편지로 한국인 사역자들에게 알렸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었다. 첫째, 1941년 3월 이후부터

61) "Thirty Six Unbroken Years' Work for the Lord," November 1937, XXXVII no.1, 4; "Baptisms in July and August This Year," 앞의 신문, 2. 1937년 7-8월 요시야선교회 그리스도의교회 침례자 총수는 66명인데 이중 한국인 그리스도의교회 침례자는 44명, 일본인 그리스도의교회 침례자는 22명이었다.

62) "Our Korean Work," TC, February 1938, XXXVII no.4, 3.

63) "Thirty-Sixth Annual Report of the Yotsuya Mission," TC, April 1937, XXXVI no.6, 3.

64) "Missions," TC, September 1937, XXXVI no.11, 4.

65) 이 통계는 TC 여러 곳에 흩어진 자료를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朝鮮總督府 學務局 鍊成課, 『朝鮮の宗教及享祀要覽』(京城: 近澤印刷所, 昭和 十七), 57. 朝鮮總督府 學務局 鍊成課가 1934-1943년까지 집계한 자료에는 교회 숫자가 1934년 2개 1940년 9개로 나온다.

66) "Opportunity in Korea," TC, February 1934, XXXIII no.4, 2.

67) "Into Korea," TC, March 1938, 37 no.5, 1.

68) "Workers Leaving," TC, September 1939, 38 no.11, 2.

69) "Why We Work in Korea," TC, September 1940, 39 no.10, 1.

70) "Our Work in Korea," TC, February 1941, 40 no.4, 2.

한국 교회는 외국 지원을 거절한다. 둘째, 선교회는 한국 교회와 선교기지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셋째, 한국 교회는 선교회로부터 사례비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1940년 9월 현재 한국에는 교회 17개(인천 4개, 서울 4개, 평북 구성 5개, 마산 1개, 대구 1개, 신의주 1개)와 30개 이상의 외각 선교기지, 한국인 사역자 13명, 그리고 737명의 교인이 있었다.⁷¹⁾ 편지를 받은 직후 서울과 제물포의 교회들은 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하기보다는 차라리 교회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결의했다.⁷²⁾ 그리고 선교회의 재정지원이 끊어질 경우를 생각하여 각자 교회의 재정 형편을 선교회에 알렸다.⁷³⁾ 17교회 중 서울 제1교회는 임대료와 사역자의 급료 일부를 지불할 수 있으며, 구성의 문임동교회, 신의주교회, 대구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며, 서울 제3교회는 임대료 지불이 어려우며, 제물포교회는 교회건물 수리비 200¥이 필요하다, 사역자의 급료가 충분하지 못한 사역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국인 사역자들의 형편을 파악한 선교회는 커닝햄기념기금(커닝햄 사후 한국에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 모금하여 비축한 기금) 가운데 일부를 긴급재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⁷⁴⁾ 결국 요시야선교회는 한국의 8개 교회에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부쳐주고, 사역자 2명(신신건과 최성진)에게 얼마간의 금액을 부치고, 또 다른 시골 교회에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선교회의 긴급 도움을 받은 한국의 17 교회들 중 15개 교회는 앞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사역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선교회에 알렸다. 선교회의 도움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한 서울 제2교회의 사역자 이난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교회에 보고했다. 선교회로부터 미리 받은 9개월 임대료로 교회의 빚을 갚았고, 선교회가 보내준 100¥에 교회가 790¥을 추가하여 예배당 건물을 구입했다. 교회는 사역자의 급료를 20¥을 지불하고, 사역자 자신은 파트타임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고 한다.⁷⁵⁾

*Tokyo Christian*의 한국의 선교사역에 대한 기록은 이난기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후 한국의 17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학무국련성과가 기록한 1941년과 1942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비교해보면, 포교소와 사역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교인 수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다시 성장세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⁷⁶⁾ 이것은 한국 내 그리스도의교회가 요시야선교회의 재정 중단 이후 교인 수에 있어 타격을 받지만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한국에 있는 17교회들은 1945년 7월 19일 조직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했다.⁷⁷⁾

71) "Why We Work in Korea," *TC*, September 1940, 39 no.10, 1. 신도 수 737명은 朝鮮總督府 學務局 鍊成課, 『朝鮮の宗教及享祀要覽』, 57쪽에 등록된 숫자로 그러나 실제로 선교기지에 모이는 숫자를 더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것이다.

72) "Mission News," *TC*, December 1940, 40 no.2, 1-4

73) "Self Support," *TC*, February 1941, 40 no.4, 1-3.

74) "The Cunningham Memorial Fund," *TC*, February 1941, 40 no.4, 3. 커닝햄 기념기금(The Cunningham Memorial Fund)은 커닝햄 사후 그의 생전 소원이었던 한국 선교사 파견을 위해 설립하여 모금한 돈이었으나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 교회건축을 위해 비축해두었던 \$2,269이다. 커닝햄 기념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Memorial To W.D. Cunningham Korea for Christ," *TC*, January 1937, 36 no.3, 3.

75) "Our Korean Work," *TC*, May 1941, 40 no. 7. 1.

76) 朝鮮總督府 學務局 鍊成課, 『朝鮮の宗教及享祀要覽』, 57, 65, 73.

년도	1939	1940	1941	1942	1943
포교소	6	9	10	16	15
포교자	10	11	12	14	14
신도수	350	445	737	498	518

77) 서정민, 「한일 기독교 관계사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23-337. 오수강, 「基督의 教會와 성

VI. 결론

위에서 연구자는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그의 사망 후에는 에밀리 B. 보이드)이 요시야선교회를 통해서 1923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18년 동안 동경(과 요코하마),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인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요시야선교회의 한국인 복음사역은 커닝햄 자신이 한국인에 대해 가진 전도열과 한국인에게 교파교회의 신조가 아닌 성경(신약교회)을 전하려는 열정에서 기인하였다. 요시야선교회는 선교사역에서 토착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방법으로 알려진 삼자 가운데 특히 자전의 원칙에 우선권을 두어, 본토인 사역자 양성에 주력하고, 본토인 사역자들을 고용하여 한국인에게 신약교회를 전하고 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게했다.

요시야선교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전개한 선교사역의 성과는 비슷한 시기에 더 많은 선교사와 재정을 가지고 선교사역을 수행한 그리스도의교회 해외선교회(FCMS)의 성과에 비교할 때 탁월한 것이었다.⁷⁸⁾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이유 중 하나는 1930년대 한국에 일어난 반교과주의운동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1940년대 초 ‘일본기독교교단’에 가입한 동경 그리스도의교회는 전쟁 후 ‘일본기독교교단’으로부터 탈퇴했고, 이 중 문을 닫은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살아남아 있다.⁷⁹⁾ 반면 1945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한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는 해방 후 교파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났지만 한 교회도 재건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1924년 요시야선교회가 개척하여 20여 년 동안 한국에 존재한 그리스도의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커닝햄이 요시야선교회를 통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복음사역과 교회개척의 모델은 동 선교회에서 7년 동안(1927.3.4-1934) 사역하다가 1936년 11월 그리스도의교회 한국 선교사로 입국한 존 채이스(John Trawrick Chase, 1905-1987)에 의해 계승되었다.⁸⁰⁾ 채이스가 한국에 입국하여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은 한국판 *Tokyo Christian*이라고 할 수 있는 *Christian Messenger*라는 신문의 발간이었고, 이어 한국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성경훈련학교(Biblical Training Institute)의 시작이었다.⁸¹⁾ 이 성경훈련학교가 성장하여 1981년 같은 그리스도의교회 계열 대한기독교신학교와 통합하여 현재의 서울기독교대학교가 되었다.

keyword

윌리엄 D. 커닝햄, 요시야선교회, 일본 한국인 그리스도의교회,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도

낙소와의 관계」(2007), 126. 이인범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를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시켰다. 이인범 자신은 해방 후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 장로교로 건너가 장로교회인 전북 여산읍 교회에서 사역하다 폐병으로 사망하였다.

78) Mark G. Maxey, *Christians in Japan* (Dallas, Texas: Christian Publishing Association, 1958), 6. 1884년부터 일본 선교를 시작한 그리스도의교회 해외선교회는 1940년 선교사 7명, 본토인 사역자 13명, 교회 19개, 교인 2,666명을 가졌다.

79) Kishimoto Daiki, E-mail[2012.05.15]. 동경 한국인 제7교회는 현재의 한국그리스도동경복음교회(Korean Jesus Tokyo Evangelical Church)가 되었다.

80)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논산: 한성신학교, 1991), 119-25.

81) "Chases Arrive In Korea," *Christian Standard*, December 1936, pp.1265-66; J.T. Chase, "Bible Training Institute Chase Started in Korean Christian Mission," *Christian Standard*, April 1937, p.291.

교 크리스천」

William D. Cunningham, Yotsuya Mission, Independent Church of Christ in Korea,
Korean Independent Church of Christ in Japan, *Tokyo Christian*

참고문헌

1차 자료

Tokyo Christian. 1921-1941.

2차 자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논산: 한성신학교, 1991.

오수강. 『基督의 教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교회, 2007.

이진구. “조선적 기독교운동.” 『한국기독교사 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서정민. 『한일 기독교 관계사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2.

한국성서신학교. 「세메론」. 제7권. 1972.

朝鮮總督府 學務局 鍊成課, 『朝鮮の宗教及享祀要覽』 京城: 近澤印刷所, 昭和 十七.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역사I』. 서울: 기독교문사, 2011.

A Concise History of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Cincinnati: the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910.

Hudson, Winthrop S. and Corrigan, John/배덕만 역. 『미국의 종교』. 서울: 성광문화사,
2008.

Cunningham, W. D. and Still, Owen.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Tokyo: Yotsuya Mission, 1939.

Kishimoto Daiki. E-mail[2012.05.15].

Maxey, Mark G. Christians in Japan. Dallas, Texas: Christian Publishing Association,
1958.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ume 11:
Advance through Storm.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5.

Shenk, Wilbert R. "Henry Venn 1796-1873, Champion of Indigenous Church
Principles." Gerald H. Anderson, et al., eds. Mission Legacies: Biographical
Studies of Leaders of the Modern Missionary Movement. New York:
Maryknoll, 1995.

Webb, Henry E.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Restoration Movement.
Abilene, Texas: ACU Press, 2003.

Abstract

William D. Cunningham and His Mission to Korean People

-Centered on Yotsuya Mission in Tokyo.

Chong-ku Pae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way of William D. Cunningham(1864-1936), the American missionary sent to Japan by Independent Church of Christ in 1901. He planted the Korean Independent Church of Christ in Japan and Korea from 1923 to early 1940s. This paper will focus mainly on the motive for Yotsuya Mission, which was managed by Cunningham, to get interested in the Korean people in Tokyo(plus Yokohama) and Korea, and the mission strategy and the mission work of this Mission as well.

This study interprets and analyzes the parts related to the mission to Korean people in Japan and Korea selected from *Tokyo Christian*, the monthly newspaper published by Yotsuya Mission from 1901 to 1961.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II describes the brief CV of Cunningham and the mission work of Yotsuya Mission, and chapter III explains the basic strategy of Yotsuya Mission. Then chapter IV shows the way for Cunningham through Yotsuya Mission to plant the Korean people residing in Japan. Finally chapter V reconstructs the way for the Korean evangelists sent by Yotsuya Mission to Korea to plant the churches of Independent Church of Christ in Korea.

The study result shows how the Korean Independent Church of Christ in Japan and Korea had developed during 1920-30s. It also discloses the fact that the founder of the Independent Church of Christ in Korea, John Trawrick Chase(1905-1987), inherited the strategy of Yotsuya Mission in his mission work in Korea.